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12:00	매 수	17매
	보도시기	배포시	사 진	9매
	담당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전략위원회 대외협력팀 유인지 연구원 ☎044-414-1544 ✉ijyoo@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 ☎ 044-414-1175		

KIEP,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강원도 고성 개최 -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 주제로 양일간 진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강원도와 공동으로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
- 접경지역 강원도 고성 개최, 평화경제 논의하는 담론의 장과 비무장지대(DMZ) 체험 연계해
- 미국, 호주,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저명 싱크탱크 수장, 외국 공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참석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번영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오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고성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온라인 참석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현장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前 주한 미국대사),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 등 미국, 프

랑스, 노르웨이, 호주, 러시아, 인도 등 우수 싱크탱크 수장들과 외국 공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온라인 및 현장 참석해 한반도 평화구축과 평화경제,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두고 해안을 나눴다.

접경지역인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의 조기 실현’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현실화’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있는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비무장지대(DMZ) 체험과 평화경제를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연계해 양일 진행했다. 25일 진행된 ‘DMZ 평화체험 기념식’ 행사에서는 강원도 고성 일대의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타워를 방문해 남북 분단의 현실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기념 표지석 제막 및 식수목 행사를 거행했다.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평화체험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남과 북의 자연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으며 어우러져 자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국제사회도 자연처럼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싹을 틔웠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미·중이 한반도 정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는 평화의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진행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는 해외 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경제의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본 포럼은 개막식 및 기조세션, 3개의 분과세션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막식에서 온라인 축사를 통해 지금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모아졌던 평화의 봄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보건의료협력, 산림협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에 이르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흐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키워 나가고, 갈등과 대결의 여지는 축소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정세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집중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 68년간 지속된 비정상적인 휴전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태의 공동관리 지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동북아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내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된 국제적인 공론장이라고 전했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강원도는 남과 북이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이자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70여 년간 자리잡고 있어 군사, 산림 규제에 따른 경제적 발전 제약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낙후된 지역 발전과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해 강원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포럼이 강원도가 평화지역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고견이 논의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세션에서는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한미연구소 소장(前 주한미국대사), 예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모한 쿠마르 인도 개발도상국연구원 원장, 뢰디거 프랑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해 연대를 기반으로 건설적으로 대응하던 인류의 역량이 상실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직면한 최우

선 과제는 각 나라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행동규범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병행되어야 하며, 둘 다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신뢰와 믿음을 평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삶과 관계가 재편됨에 따라 공중 보건, 경제적 회복 등에서 북한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은 워싱턴에서 북한정권교체가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다시금 긴장이 유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전략 3원칙인 평화 우선(peace first), 핵 불용(no nukes), 북한붕괴 불원(no regime change)은 이를 돕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에 남북한이 합의해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실무급(low-level) 회담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미·중대립의 여파에 집중했다. 양국의 연간 군사지출을 합치면 1조 달러에 이르고, 양국의 합산 글로벌 탄소배출량이 44%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두 국가의 경쟁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양국의 지속되는 분쟁과 갈등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 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은 서구권에서는 현재 북한 경제체제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 내 특정 사회계층(엘리트 및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개혁할 때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해당 결과를 정상회담과 각종 외교형식, 경제 제재, 군사적 위협 등 구체적 조치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도, 강원연구원이 모여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 △남북협

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상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조기 실현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분과세션을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분과 1부 세션은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진 H. 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를 논의했다.

이어 분과 2부 세션은 ‘남북협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주제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성 서울대 교수 등 5명의 발표자가 참여해 평화경제특구 방향성 및 특구 지정 후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제 및 토론했다.

분과 3부 세션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조기 실현방안’에 대해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겸 강원도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과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송영훈 강원대 교수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주자치도 설치과정 분석, 특별자치도 역할과 남북협력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과 내용을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평화경제 분야 글로벌 우수 기관과 지속적·실질적인 네트워크를 다져 국제 사회에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

- 붙임.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프로그램 및 포스터
- 별첨.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프로그램북
- 별첨.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발표자료집
- 별첨.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행사사진

▲1일차 - 11월 25일(목): DMZ 평화체험

시간		내용
13:00-14:00	'60	등록 및 이동
14:00-15:30	'90	통일안보공원 및 DMZ 박물관
15:30-17:00	'90	고성 통일전망타워

고성 DMZ 박물관	
	세계냉전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를 주제로 6. 25전쟁 전후의 모습, 정전협정으로 생긴 군사분계선과 DMZ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이후 지속되었던 군사충돌 그 동안 민간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독특한 생태환경 등을 전시물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타워	
	고성 통일전망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망대로 북위 38도 이북 8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과 바다위의 금강이라 불리는 해금강,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깃든 감호, 하얀 포 말에 휘감긴 송도 등 푸른 동해의 절경과 백사장은 한 폭의 수채화를 바라보듯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2일차 - 11월 26일(금): 국제포럼 및 분과세션

시간		세부내용	
10:00- 10:40	'40	개막식	
		개회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	김부겸 국무총리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기조연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10:40- 12:10	'90	기조세션	
		좌장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연사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평화와 이해를 위한 국제포럼 국장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모한 쿠마르 인도 개발도상국연구원 원장
14:00- 16:00	'12 0	분과세션1	
		주제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
		좌장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발표	진 H. 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김동길 중국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한반도 연구센터 소장
			이찬우 일본 데이쿄대학교 교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센터장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분과세션2	
		주제	남북협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상
		좌장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패널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변상욱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사무소 부장
			정유석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은주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분과세션3	
		주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조기 실현 방안
		좌장	안동규 한림대학교 부총장 겸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연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
		패널	김주원 상지대학교 교수 겸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부원장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용우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강민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 행사 포스터

DMZ

International Forum on the Peace Economy

평화경제 국제포럼

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

YouTube
관공계 바로가기

November 25 Thu. – 26 Fri., 2021

Sono Calm Del Pino, Goseong, Gangwon Province
강원도 고성 소노칼 델피노

[주요 초청인사]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Andrey BYSTRITSKIY
러시아 합동외교청
대사관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예를 토예
Aske TOJE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평화와 이해를 위한 국제포럼 국장

스티브 킬렐레아
Steve KILLELEA
호주 경제발전연구소
소장자

이인영
LEE In-young
총무부
청장

토마 고아
Thomas GOMHART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모한 쿠마르
Mohan KUMAR
인도 개발도상국연구소
소장

라인드 E. 그로스
Robert E. GROSSE
독일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루디거 프랑크
Rodrigo FRANC
오스트리아 연방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

홍현익
HONG Hyunuk
국립외교원
청장

[주요 프로그램]

11월 25일(목) 13:00 ~ 17:00

DMZ 평화 체험

11월 26일(금) 10:00 ~ 16:00

개막식 및 기초 세션 | 10:00 ~ 12:10

10:00 ~ 10:40	개막식	개 회 사 정해구 경제외교사정연구소장 이사장 축 사 김부겸 국무총리 최태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기초연설 이인영 총무부 장관
10:40 ~ 12:10	기초세션	주최 김홍중 재외경제협력연구소 회장 주최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합동외교청 대사관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예를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평화와 이해를 위한 국제포럼 국장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발전연구소 소장자 토마 고아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모한 쿠마르 인도 개발도상국연구소 회장 라인드 E. 그로스 독일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연방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

본과세션 | 14:00 ~ 16:00

- 본과세션 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재와 미래: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
주최 **KIEP** 평화경제협력연구소

- 본과세션 2 남북협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성
주최 **KIEP** 강원연구원

- 본과세션 3 강원 평화혁신자지도 설치 조기 실현 방안
주최 **KIEP** 강원연구원

Hosted by

주최

Organized by

주최

Sponsored by

주최

KIEP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114 | FAX. 044)414-1144

- 8 -

[사진자료1] ‘DMZ 평화체험 기념식’ 행사: 기념 표지석 제막 및 식수목 행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5일 진행된 ‘DMZ 평화체험 기념식’ 행사에서는 강원도 고성 일대의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타워를 방문해 남북 분단의 현실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기념 표지석 제막 및 식수목 행사를 거행했다.

(왼쪽부터)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롬마니 카나누락 주한 태국 대사, 알렉산더 체빈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센터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 진 H. 리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 뻬까 메조 주한 핀란드 대사, 프랑소와 봉땅 주한 벨기에 대사가 식수목 및 표지석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2] ‘DMZ 평화체험 기념식’ 행사: DMZ 박물관 단체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5일 진행된 ‘DMZ 평화체험 기념식’ 행사에서 DMZ 박물관을 방문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자료3]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단체 기념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진 H. 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선임연구원,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센터장.

[사진자료4]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현장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이 기조세션을 좌장을 맡아 진행 중이다.

[사진자료5]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개회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종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자료6]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자료7] 김부겸 국무총리 온라인 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온라인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자료8] 이인영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자료9]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기조세션 진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홍중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좌장을 맡고 기조세션을 진행하고 있다.